



## 서재응 허벅지 부상...KIA 비상

왼쪽 근육 파열...3~4주 절대 안정 필요  
올림픽 예선·시즌 개막전 참가도 불투명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 중인 KIA타이거즈의 서재응(31·사진)이 왼쪽 허벅지 뒤쪽 근육(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하다. 서재응은 지난 6일 러닝을 하던 중 왼쪽 허벅지에 근육통을 호소해 현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통해 '햄스트링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3~4주가량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서재응은 현재 훈련을 중단한 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걷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재응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자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1, 2군 선수단이 모두 일본과 태국에서 전

지훈련 중인 점을 감안해 미야자키 캠프에 잔류해 재활에 전념하기로 했다. 햄스트링 파열의 경우 최소 한 달 가량의 치료가 필요하고, 완쾌 이후 정상적인 피칭을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3월 29일 대구에서 삼성과 예정된 개막전 출전은 물론 최악의 경우 4월 중순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20일 소집되는 베이징 올림픽 예선 대표팀 참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V10'의 목표를 내세운 조병현호는 시즌 시작 전부터 '주전급 부상'이라는 안초를 만나 '차포'(車包)를 떼고 2008시즌을 맞게 생겼다. 공격 야구 부활의 선봉에 선 최희성이 두통과 어

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데 이어, 화려한 국내 복귀 무대를 준비하던 서재응은 갑작스런 부상으로 쓰러졌다. 최희성은 컨디션이 정상으로 올라왔지만 훈련 페이스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늦고, 1선발로 낙점받았던 서재응은 언제 다시 마운드를 밟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메이저리거 출신 선수는 처음 경험한 국내 프로야구의 스프링캠프에서 큰 충격을 치렀다.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1월 초순에 스프링캠프가 시작돼 메이저리거보다 한 달가량 훈련 일정이 빠르다. 서재응은 지난 1월 끝에서 실시했던 1차 훈련에서도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3월 초 피칭을 목표로 훈련속도를 늦춰왔다. 햄스트링 부상은 재활이 잦은 데다 우완인 서재응의 경우 투구시 축으로 사용해야 하는 왼쪽 다리에 부상을 당한 만큼 재활과 복귀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시즌 전반기 KIA 전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FA 김병현 "스프링캠프 다가오는데..."

'새 등지' 아직도 못찾아

미국프로야구 스프링캠프 개막이 나올 것으로 다가왔지만 '핵심수' 김병현(29)의 거취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메이저리거는 14일부터 투수와 포수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 맞이에 나서게 되고, 야수는 일주일 가량 늦게 훈련에 합류한다. 28일부터는 한 달가량 시범경기를 치르게 된다. FA(자유계약선수)대어들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팀의 2008시즌 윤곽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FA신분인 김병현은 어느 팀에 등지를 틀게 됐는지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현재 FA 자격의 선발 투수 38명 가운데 16명만이 계약을 끝내 김병현을 비롯한 나머지 선수는 애타게

소속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즌을 앞두고 각 팀의 정비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선발 투수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여왔던 김병현의 입지는 좁다. 250만 달러에 달하는 김병현의 몸값도 부담이다. 불펜으로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FA를 선언했던 특급 마무리와 셋업맨들이 자리를 선점해 마이너리거나 1년 계약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해 텍사스와의 5년 계약을 끝내고 FA로 새 팀을 찾느라 고전했던 박찬호(35)보다도 상황이 안 좋다. 캠프 개막 직전까지 새 팀을 구하지 못했던 박찬호는 에이전트를 교체한 끝에 뉴욕 메츠 유니폼을 입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병현의 경우 다른 에이전트를 고용하기에 도 시기적으로 늦었다. 김병현이 최악의 상황에서 스프링캠프를 맞이하게 되자, 미공에 빠진 그의 진로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이승훈(왼쪽)이 지난 9일 미국 유타주 کن츠의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벌어진 2008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우승의 질주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는 이호석. /연합뉴스

## 이승훈 1,500m '금빛 질주'

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대회  
이호석 '은'...女 메달사냥 실패

에이스 안현수(23·한국체대 졸업예정)의 부상 공백을 잘 메웠던 쇼트트랙 대표팀이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첫날 금메달 1개에 머무르며 잠시 주춤했다. 남자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치러진 이번 시즌 마지막 월드컵 시리즈 1,500m 결승에서

이승훈(한국체대·2분13초922)이 금메달을 따냈다. 이호석(경희대·2분14초072)도 미국의 간판 아폴로 안톤 오노(2분14초252)와 접전 끝에 2위를 차지해 한국은 남자 1,500m에서 금·은메달을 휩쓸었다. 또 남자 500m 1차 레이스 결승에 진출한 성시백(연세대)은 41초226의 기록으로 결

승선을 통과, 캐나다의 찰스 해밀린(41초205)에게 0.026초 차로 1위 자리를 내주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여자 대표팀은 메달 사냥에 모두 실패했다. 여자 1,500m 결승에 나선 정은주는 실격돼 5위에 머물렀고, 양신영(분당고)은 결승 진출에 실패한 뒤 순위 결정전(파이널 B)

으로 밀려 11위에 그쳤다. 또 여자 간판 진선유(단국대)는 준결승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 순위 결정전에도 나서지 못한 채 15위로 처졌다. 여자 500m에 출전한 박승희(서현중)와 신새봄(광문고)도 결승 진출에 실패해 각각 5위와 7위에 만족해야만 했다.



##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1회전 단식...독일 마이어 꺾어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 이형택(세계랭킹 44위·삼성증권)이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에서 조국에 월드컵 사상 첫 승을 안겼다. 그러나 대표팀은 승부의 분수령이던 복식에서 패하는 바람에 전체 전적 1승2패로 바람에 몰렸다. 이형택은 지난 9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니더 작센주 브라운 슈바이크 풀크스바겐 할레에서 끝난 독일과 월드컵 1회전 첫날 경기에서 단식 두 번째 주자로 나서 플로리안 마이어(68위)를 3-2(7-5 6-3 1-6 6-7(7-9) 6-3)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은 데이비스컵에 처음 출전한 1959년 이후 16강이 맞붙는 월드컵에서 통산 첫 승을 누웠다. 대표팀은 1981년과 1987년 월드컵에 진출했으나 1회전에서 각각 뉴질랜드와 프랑스에 0-5로 패해 승리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 지난해 20년 만에 대표팀을 월드컵으로 이끌고 이날 기념비적인 승리까지 달성한 이형택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어렵게 끝났다. 그러나 적지에서 첫 승이고 다음 경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좋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쳤어야 했다. 4세트에서 찬스가 있었는데 놓쳤다. 마지막 세트에 마이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며 끈기의 승리였음을 강조했다. 월드컵 첫 승에 대해 이형택은 "앞으로 한국 테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다. 월드컵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후배들에게 다가가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골프 코도 회원권**

골프장 시범회원권	골프장 시범회원권
광주 3,500	충청 1,700
남광주 4,400	금도 1,900
클럽900 6,400	도보양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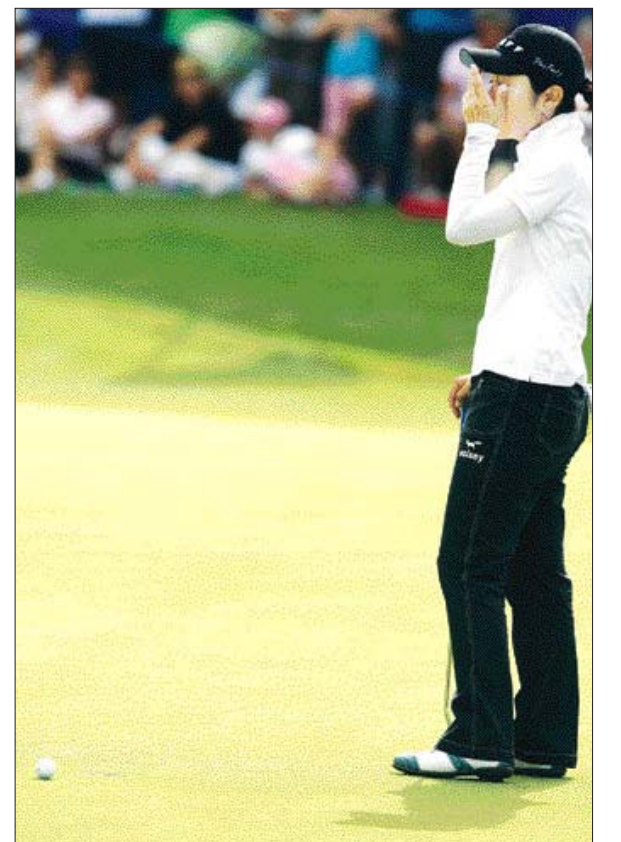
성원문의 (062)351-0095

## 80cm 퍼팅 실수...신현주 아쉬운 2위

신지에 6위, 양희영 9위  
유럽투어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

다 잡은 듯한 우승컵이 단 80cm 퍼트 실수로 날아가고 말았다.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뛰고 있는 신현주(27·다이와)는 10일 호주 골드코스트 로열파인스골프장(파72·5천 892m)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ANZ 레이디스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지만 6타를 줄인 리사 홀(잉글랜드)에 1타 뒤져 준우승(12언더파 204타)에 그쳤다. 지난 3일 끝난 MFS호주여자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했던 신지에(20·하이마트)는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6위(9언더파 207타)에 올랐고 2005년 이 대회 우승자 양희영(19·삼성전자)은 3타를 줄여 공동 9위(7언더파 209타)에 입상, 한국 선수 3명이 '톱10'에 진입했다. 호주여자오픈에 이어 2주 연속 우승과 이 대회 일곱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웨는 2타밖에 풀이지 못해 5위(10언더파 206타)에 그쳤다. 첫날 공동 2위, 2라운드 공동 1위를 달렸던 신현주는 15번홀까지 선두를 질주하며 한국, 일본에 이어 유럽무대 우승을 바라봤으나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빠아픈 3퍼트에 물었다. 앞서 13언더파 203타로 경기를 마친 홀과 공동 선두였던 신현주는 18번홀에서 10m 거리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가 홀 앞 80cm 앞에 멈춰 연장전이 예상됐지만 밤심하고 친 퍼트는 홀을 외면했다. 18번홀 그린을 둘러 싸고 있던 갤러리들은 탄식을 쏟아냈고 신현주는 맥빠진 보기 퍼트로 진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그러나 신현주의 준우승으로 호주에서 2주 동안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잇따라 준우승을 차지했다. 신현주에 1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홀은 버디 6개를 쓸어담으며 16번홀에서 신현주를 따라 잡아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연장전을 준비하다 신현주의 어이없는 퍼팅 실수 덕에 뜻밖의 우승컵을 품게 안았다.



신현주가 10일 최종 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80cm 퍼트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신현주는 이날 리사 홀(잉글랜드)에 1타 뒤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